

“가을철 야외활동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목포시, 감염병 예방 당부

목포시가 가을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당부했다.

가을철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질환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와 쯤쯤가무시증 등이 있으며 별초, 등산, 추수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가장 많이 감염된다.

이 밖에도 논, 개울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렙토스피라증, 감염된 설치류의 타액, 소변, 분변이 건조돼 비말 형태로 감염되는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가을철 주의해야 할 감염병이다.

진드기 매개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시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 ▲풀밭 작업 시 긴팔, 긴소락 착용하기 ▲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옷은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샤워나 목욕하기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가을철 발열성질환 환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피제·포스터·리플렛 등을 배부하고 있



다. 신증후군출혈열의 경우에는 농업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발열성질환은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야외 활동 후 주요 증상인 발열, 오한, 두통,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지난 2일 광주 선명학교에서 열린 '상상 패럴림픽 5th'.

KT&G 전남 운영사무국 '상상 패럴림픽 5th'

장애인 인식 개선·관계 증진 의미

KT&G 상상유니브 전남 운영사무국(본부장 이승우)은 지난 11월 2일 광주 선명학교에서 '상상 패럴림픽 5th'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상 패럴림픽은 장애인올림픽에서 착안한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장애인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KT&G 상상유니브 대학생 봉사단인 '상상 발룬티어(volunteer)'가 주축이 되고 광주·전남 대학생 봉사자 100여명과 장애인 100여명이 참여하여 선명학교 친구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1:1 매칭으로 진행하고 조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초청공연, 전남대 미술학과 캐리커처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즐거운 축제의 장이 진행되었다.

이번 상상 패럴림픽을 참여한 상상발룬티어 임종현 학생은 “작년에는 자원봉사로 지원해 참여했지만 올해는 직접 상상 패럴림픽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장애인 인식에 있어 조금 더 가까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함께 즐기고 추억하며 나눌 수 있는 이번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KT&G는 연간 매출액의 2.5%(약 728억원)를 사회에 환원하며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5일 (월) 음력: 9월 28일. 수도권 날씨: 8 ~ 18°C. 전국 날씨 지도: 연천 4/17, 동두천 5/18, 가평 3/18, 파주 4/19, 서울 8/18, 양평 5/18, 인천 10/17, 수원 7/18, 용인 7/18, 평택 6/18. 백령도 11/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2만여 대리·택배기사 쉼터 조성

경기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일한 이동노동자 휴식·근무여건 개선 힘써

경기도가 2만1600여명에 달하는 도내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조성을 추진한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의 일환이다.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은 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대리기사나 퀵



서비스기사,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목적이다.

현재 도내에는 약 2만1600명의 이동노동자가 등록돼 있지만 이들을 위한 쉼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난방기,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발 마사지기 등 편의시설이 지원된다. 또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금융·법

률·가계·복지 등의 기초 상담 서비스와 직업·전직·건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노동법률 상담 제공과 법률지원 등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시·군별 수요조사에 이어 시군 및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공간 형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추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가 사업총괄과 기본계획 수립을, 시·군이 쉼터 공간 확보와 운영을 각각 맡게 되며 사업비의 50%를 도에서 분담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활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군을 우선 고려해 올해 연말 최종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광주銀, 쉽고 편한 모바일웹뱅킹 리뉴얼

고객 편의 맞춤 금융서비스 확대
옴니채널 창구디지털서비스 적용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7월 '모바일웹(web)뱅킹' 출시에 이어 최근 모바일웹(web)뱅킹 서비스를 리뉴얼하고 창구 디지털서비스(BDT; Branch Digital Transformation)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웹(Web)뱅킹은 기존 스마트뱅킹과 달리 어플(APP)을 설치하지 않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광주은행'을 검색하여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계좌신규(원화, 외화), 정기에·적금, 여성 전용적금, 신용대출, 신용카드, 체크카드, 퇴직연금 IRP, 중도금대출 신청 등 각종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리뉴얼을 통해 은행권 처음으로 공용DB와 워크플로우 설계방식을



도입하여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각 상품 및 서비스 가입 중 진행을 중단한 경우 '이어가기' 기능, 계좌 동시개설, 전자방식서류제출서비스, 모바일약정서비스, 위치정보기반 영업점 찾기, 상담예약(VIP방문예약) 등 고객편의에 초점을 둔 금융 서비스 제공을 대폭 확대하였다.

더불어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연결) 방식 설계로 창구디지털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영업점 직원은 '전자명함'에 상품과 서비스를 첨부하여 고객에게 SMS-URL을 발송하고, 고객은 URL 접속으로 간편하게 상품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은행은 올 연말까지 모바일뱅킹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확대하고,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오픈, 인터넷·스마트폰뱅킹 고도화 등 고객 중심의 디지털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은행 백의성 디지털전략부장은 “모든 상품·서비스 가입을 비롯한 은행 업무를 디지털화하여 고객이 쉽고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혁신적인 디지털뱅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마을기업 (유)삼향골, 목포愛손두부 개업... 일자리 창출 등 기대

목포시 마을기업 (유)삼향골이 '목포愛손두부'를 개업했다. (유)삼향골은 지난 1일 김종식 목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을 갖고 영업 개시를 알렸다.

'목포愛손두부'는 국산콩과 해양심층수, 청미래로 만든 무방부제 손두부를 제조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5년도에는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으로 인증받은 (유)삼향골은 주말농장 운영, 전통 반찬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



지난 1일 삼향골 마을기업 개업 기념식.

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마을기업은 시장

경제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유)삼향골이 더욱 번창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티웨이항공, 국제 정기노선 신규 취항식

티웨이항공이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국제 정기노선 신규 취항식을 갖고 첫 국제 정기노선 운항에 들어갔다.

이날 취항식은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장영식 무안군 부군수, 티웨이항공

정비본부장,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전남도 및 무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꽃다발 증정,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취항으로 티웨이항공은 무안-기

타큐슈노선(오후 8시 20분에 출발, 오후 9시 30분 도착)을 매일 운항한다.

또한, 다음달 22일부터는 무안-오이타(주4회), 무안-사가(주2회) 등의 노선도 정기 취항이 확정되어 티웨이항공의 무안국제공항 노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무안=양수현 기자 ysn6313@